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	
		배포일자 2021년 8월 4일(수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			
담당 부서	시립박물관	담 당 자	•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☎440-6731 • 담당자 최병훈 ☎440-6749			
사 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열린박물관에서 만나는 그 시절 인천

- 인천시립박물관,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

〈찰나의 인천-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〉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시청역에 위치하고 있는 열린박물관에서 〈찰나의 인천-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〉을 10월 24일까지 선보인다고 밝혔다.

박근원은 황해남도 벽성군 출신으로 6.25전쟁 때 인천으로 피난와 정착해 1970년 연합신문에 입사한 후 경인일보의 전신인 경기신문과 인천일보·기호일보 등에서 오랫동안 사진기자로 활약했다.

그는 사진기자로 활동하면서 찍은 인천의 사진 3,000여장을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했는데, 그 중 일부를 〈찰나의 인천-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〉에서 전시한다.

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. 1부 ‘사람, 바라보다’에서는 학교, 나들이 등 평범한 이웃들의 일상을 보여주고,

2부 ‘사건, 기록하다’ 는 그가 마주했던 시대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된 사진을 소개한다.

마지막으로 3부 ‘인천, 담아내다’ 는 끊임없이 변화해 온 도시 인천의 풍경을 현재의 모습과 비교했다.

이번 전시가 개최되는 열린박물관은 인천시청역 1번 출구와 9번 출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, ‘아무나 관람할 수 있고 누구나 전시할 수 있는 바쁜 일상 속 쉼표’ 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지하철이 운영되는 시간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.

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“박물관에서 개최했던 <찰나의 인천>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.” 며 “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이 특별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한다.” 고 말했다.

(문의전화: 032-440-6749)

<붙임> 관련 사진자료.

<붙임> 관련 사진자료.

	<p>「사진 1」 <찰나의 인천-사진기자 박근원의 사진첩> 포스터</p>
	<p>「사진 2」 열린박물관 전시 전경</p>